

깊이 보기

: 왜 소규모 사업장에 참여형작업환경개선기법(PAOT)을 권하는가?

왜 소규모 사업장에 참여형작업환경개선기법(PAOT)을 권하는가? (4)

1.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의 애로점
2. 소규모 사업장작업환경개선(WISE) 프로그램에 대하여
3. 참여형작업환경개선기법(PAOT), 위험성평가 및
법정 작업환경측정의 비교
4. 향후 과제: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와
참여형작업환경개선기법(PAOT)의 접목



박정선

대한산업보건협회
울산산업보건센터
보건관리팀
대구가톨릭대학교
산업보건학과 석좌교수

4. 향후 과제: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와 참여형작업환경 개선기법(PAOT)의 접목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의 두 주체

소규모 사업장이건 중대규모 사업장이건 간에 작업환경개선의 주체는 둘이어야 한다고 본다. 즉, 큰돈이 들어가는 보다 근원적인 개선(예를 들어 공장설비, 작업대, 생산원료 등)은 사업주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평가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상적인 소소한 개선(예를 들어 근로자가 불편해하고 사고가 날까 걱정되는 부분)은 근로자가 동료들이나 작업반장(관리감독자)과 의논하여 바로 개선해야 한다. 이때 동종업종에서 이미 경험한 좋은 개선사례를 알게 된다면 더욱 쉽고 간단하게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작업환경측정을 하거나 전문가가 굳이 개입하지 않더라도 참여형작업환경개선기법을 통해 일상적이고 소소한 개선을 바로바로 하는 것만으로도 산재가 많이 예방될 수 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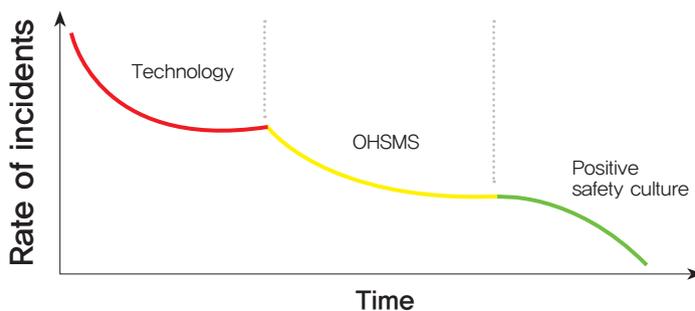
안전문화 구축을 통한 사업장안전보건관리

2000년대 중반기부터 산업안전보건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그림 1>과 같이 '긍정적 안전 문화'다. 사업장의 안전 문화를 긍정적으로 바꿔야 오래 오래 지속 가능하면서 보다 큰 개선으로 연결되는 사업장 안전보건관리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직원들의 전사적인 참여와 일상적인 개선의 체질화가 필요한데, 중대규모 사업체인든 소규모 사업체인든 간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식적인)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작업환경측정을 하거나
전문가가 굳이
개입하지 않더라도
참여형작업환경개선기
법을 통해 일상적이고
소소한 개선을 바로
바로 하는 것만으로도
산재가 많이 예방될 수
있다고 본다.

<그림 1> 예방문화로의 진화 과정 (참고문헌 2 참고)

Period	~1980s	1980s~Mid 2000s	Mid 2000s~
National Level	Legislation & Labour inspection +		National policy, system for workers' health
Workplace level	Technologic approach	Technology + OHSMS	Tech, + OHSMS Positive safety culture



깊이 보기

: 왜 소규모 사업장에 참여형작업환경개선기법(PAOT)을 권하는가?



구축이나 안전보건경영시스템(OHSMS) 도입보다는 실제 근로자가 자기 자신을 위해 스스로 개선하게 만드는 참여형작업환경개선기법(PAOT)이 긍정적인 안전 문화 구축에 가장 적합한 방식이라 본다.

향후 추진과제

사업장,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문화 구축을 위해 향후 추진해야 할 구체적인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인 참여형작업환경개선기법(PAOT)을 고용노동부에서 정책적으로 채택하기를 제안한다. WISE는 안전보건교육과 작업환경평가 및 개선 활동을 하나로 통합한 프로그램이며, 참여·소통·지속가능성이라는 참여형작업환경개선기법(PAOT)의 특성은 사업장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주요 요소이기도 하다.

둘째,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관리감독자는 법적으로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를 해야 한다. 또한,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을 해야 하고, 위험성평가를 위해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에 참여하거나 개선 조치의 시행에 참여해야 하도록 되어 있다. 관리감독자로 지정되면 연간 16시간 이상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받게 되어 있는데, 자신을 지도·조언해 줄 안전

실제 근로자가 자기 자신을 위해 스스로 개선하게 만드는 참여형작업환경개선기법(PAOT)이 긍정적인 안전 문화 구축에 가장 적합한 방식이라 본다.



관리자나 보건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제조업체의 관리감독자에게는 WISE 프로그램에, 소규모 건설현장의 관리감독자에게는 WISCON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참여형작업환경개선기법을 배우게 하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누구나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우수개선사례 사진을 모아둘 수 있는 DB를 구축하고, 정기적인 우수사례발표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넷째, 현장의 우수개선사례를 모아 사업장에 전달하고 WISE 워크숍을 운영할 퍼실리테이터 양성 프로그램을 만든다. ☺

**참고 문헌**

1.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ZTITLE&menuId=M_01_01#content-group
2. 박정선, 김양호, 김수근, 박종식, 한보영, 정은교. 급성메탄올중독사고 왜 발생했으며 그 대책은 무엇인가. 한국산업보건학회지, 제26권 제4호(2016) pp. 389-395
3. ILO, Global Manual for WISE - Work Improvements in Small Enterprises, International Labour Office, Geneva, 2017
4. Kazutaka Kogi, Advances in participatory Occupational Health Aimed at Good Practices in Small Enterprises and the Informal Sector, Industrial Health 2006, 44, 31-34.
5. Kazutaka Kogi, Roles of Participatory Action-oriented Programs in Promoting Safety and Health at Work, Saf Health Work 2012;3:155-65.
6. Yangho Kim, Jungsun Park, Mijin Park, Creating a Culture of Prevention i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Practice, Saf Health Work 2016;7:89-96.